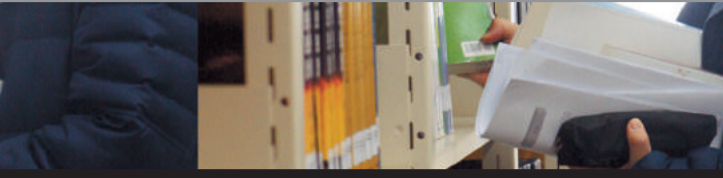


## 3» 영어학부 편제개편 논의



## 6» 데이터뉴스-재학생1인당 독서량



## 2016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 실시 안내

기간 : 2016. 06. 01~06. 28 대상 : 서울·국제캠퍼스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대상강좌 : 학부 및 대학원 전체 개설 강좌  
강의평가 실시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수업/성적/상담 → 수업 → 강의평가 클릭



## 문과대학 전임 회장 대상 금품수수 의혹 제기

지난달 30일 문과대학 학생회 박원규(사학 2014) 회장이 붙인 ‘양심선언’ 대자보를 학생들이 보고 있다. 박 회장은 대자보를 통해 문과대학 전임 회장들이 버스 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과대학 전 회장들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작 버스 업체는 돈을 준 적이 없다고 한다. 어디가 진실일까

관련기사 ▶4면

## Newsmaker

교수밴드동아리 ‘코스모스’ 보컬  
전자·전파공학과 서덕영 교수



## “걱정 말아요 그대”

정혜빈 기자 hb0204@khu.ac.kr

#. 지난 26일 국제캠퍼스(국제캠) 봄 대동제 ‘경희콘서트’의 폐막식에서 교수 밴드 동아리인 ‘코스모스’의 공연이 열렸다. ‘코스모스’는 학내 유일의 교수 밴드 동아리다. 폐막식 첫 순서였던 ‘코스모스’의 공연은 신해철의 ‘그대에게’, 영화 ‘미션 임파서블 2’의 삽입곡인 Limp Bizkit의 ‘Take a look around’,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 Deep Purple의 ‘Highway star’가 차례로 연주됐다. “모두 걱정은 털어두고 함께 축제를 즐기자”는 흥분일(응용수학) 교수의 말로 시작된 공연은 관객의 열성적인 호응과 함께 진행됐다. ‘코스모스’의 보컬 서덕영(전자·전파공학) 교수를 만나봤다.

‘코스모스’는 국제캠 전자·전파공학과 학생 밴드 동아리인 ‘카오스’의 지도교수를 맡는 서 교수가 학생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같이 무대에 섰던 것을 계기로 시작했다. 그 후로 대학시절 밴드 동아리를 했거나 하고 싶었던 교수와 악기연주를 즐겨하는 교수가 차례로 모여 지금의 밴드가 만들어졌다. 현재 ‘코스모스’는 서덕영, 이범선, 김영수(이상 전자·전파공학), 홍범일, 김정산(이상 응용수학), 강은주, 안광현(이상 응용화학), 박광현(원자력공학), 장민환(우주과학), 백무열(식품공학) 교수가 활동하고 있다.

‘코스모스’는 현재까지 ‘카오스’와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밴드 보컬인 서 교수는 “동아리명인 ‘코스모스’도 ‘카오스’로부터 지어졌다”며 “우주 발생설 중 우주가 카오스(혼돈) 상태에서 코스모스(질서정연)의 상태로 된다는 대목에서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코스모스’는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하는 축제를 만들고 싶어 폐막식의 공연을 신청했다.

서 교수는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이 모여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됐으면 한다”며 “연예인을 보는데 치중된 축제가 아쉬웠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 위주의 사회 속에서 축제의 다양성도 사라져가고, 흥겨운 축제 속에서도 우울해하는 학생들이 많아 걱정이 됐다”고 했다. 그래서 이들은 “걱정을 털어주겠다”는 주제로 공연을 준비했다. 서 교수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걱정하지 말고, 스스로가 이미 빛나고 있는 스타라는 생각을 했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하고자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와 Deep Purple의 ‘Highway star’를 선곡했다”고 말했다.

매일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지만 ‘코스모스’에서 활동하는 교수 모두 무대공포증을 갖고 있다. 공연을 준비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대에 서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었다. 서 교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도 아닌 무대에 서는 것이라는 말이 공감된다”며 “무대에서 틀리면 안 된다는 불안감에 공연을 앞두고 밤잠을 설칠 때도 있다”고 고백했다. 그럼에도 ‘코스모스’가 계속해서 무대에 오르는 이유는 노력을 통해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는 삶이 의미 있다는 그들의 생각 때문이다.

‘코스모스’는 공연을 통해 관객들이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상태다”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서 교수는 “젊음은 열정을 갖고, 다른 사람은 미친 짓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공연을 통해 모두가 젊음을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3면으로 이어짐

# ‘프라임’ 후속 사업, 외대 교수 ‘반발’

## 정원 조정안 제출

이성민 기자 lsm1590@khu.ac.kr

대학본부가 국제캠퍼스(국제캠) 컴퓨터공학과 증원과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 신설 관련 정원조정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계획안을 제출하기까지의 과정과 절차를 두고 해당 단과대학 교수들과 학교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다.

이번 정원조정계획은 프라임사업 탈락 후 이어지는 후속사업이다. 미래정책원(미정원) 신상협(국제대학원) 원장은 “선정에는 실패했지만,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차근차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대학주보 제1607호(2016.05.23)〉 지난달 16일 국제캠 황주호(원자력공학) 부총장은 임시학장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

서 황 부총장은 프라임사업 후속 조치에 대한 계획을 제안했고, 학장들의 서명을 받아 진행했다. 그러나 대학본부와 학장 간의 논의만 이뤄지고, 일반 교수들은 논의에서 소외되면서 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외국어대학 교수들이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약 20명의 외국어대학(외대) 교수들은 지난달 16일 황 부총장에게 항의 방문했다. 외대 교수들은 그 자리에서 5월 3일부터 이 계획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음을 알았다. 성기완(글로벌커뮤니케이션선학) 교수는 “5월 20일까지 충분히 공론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학교 측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해 소통의 방식이 잘못됐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 부총장은 지난달 20일 외대 교수들에게 서신을 보

내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단과대학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황 부총장은 “외국어대학 교수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 사안은 지난달 12일과 16일 양 일간 진행된 학장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황 부총장의 설명에 따르면 처음 12일 회의에서는 공과대학과 전자정보대학 내에서만 정원을 감축할 경우 정원조정 의미 적다는 대학본부의 입장을 설명했으나, 단과대학 학장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이후 16일 회의에서 컴퓨터공학과 정원 증원은 공과대학과 전자정보대학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고, 신설되는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에 한해 국제캠 전체 단과대학 정원을 조정

하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대학본부와 학장 간의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 교수는 “부총장도 소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캠 황 부총장에게 “원위치에서 논의하자고 말씀드렸더니, 양해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24일 외대 교수회의에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총장님과의 면담 요청과 외대 교수들의 결의사항을 총장님께 서신으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대 교수들은 서신에서 “프라임사업안이 작성되는 동안 문제제시됐던 소통 부족은 물론이거니와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공유되지 않은 작금의 상황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3면으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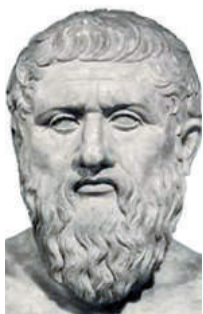
# 에우다이모니아, 배달될 수 없는 행복

##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 15

이윤성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매일 아침 행복을 배달합니다.” 이 광고는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제빵업체의 배달 트럭 옆면에 새겨진 문구이다. 행복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제 그 행복을 배달한다고? 이런 광고 문구가 문제적인 것은, 단지 행복을 아침에 배달되는 빵 같은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만이 아니다. 육신의 하기를 달래주는 빵 한 덩이가 기쁨의 원천이고 그

기쁨의 원인이 포만감일 수는 있지만, 포만감과 행복은 같은 것이 아니다. 그 광고 문구가 심각하게 문제적인 이유는 행복이 빵 한 덩이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지닌 탁월성을 가장 잘 실현하는 것이 인간다운 인간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슬쩍 치환되면서 더 이상 행복에 대한 깊은 사유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행복이 배달 가능한 빵으로 둔갑하는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빵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돈 몇 톨이다. 행복이 이미 만들어진 빵의 구매로 변질되는 순간, 행복에 대한 고민도 날아간다. 그러나 행복이 배달된 빵 같은 것일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제법 많다. 그 중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 자체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은 철학자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의 행복은 아침에 배달되

는 빵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때 등장해야 하는 것이 ‘좋은 삶’이다. 왜 그런가? 인간 삶의 목적은 인간이 지닌 탁월성(아레테, 덕)을 가장 잘 실현하는 것, 즉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런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니까. 그런데 이 사실과 행복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관련이 있다. 인간이 지닌 탁월성을 가장 잘 실현하는 것이 인간다운 인간의 삶의 목적이다.

▶7면으로 이어짐

## 알림

## 이번 호가 2016학년도 1학기 중간호입니다

대학주보는 방학중에도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edia.khu.ac.kr/khunews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  
친구가 1만명을 넘었습니다  
더 많은 소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www.facebook.com/khunews/



## 대학주보 65기 수습기자 사령 3면 >

시선

사설

책 읽지 않는 캠퍼스,  
진리에서도 멀어진다

문자가 인간의 경험지식을 후대로 전달해주며 문명 사회가 대동할 기반을 형성한 이후로, 인간 문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대부분의 정보는 기록유산의 형태로 전승되어 왔다. 그래서 대중에게 공식적인 교육이 제공되지 않던 19세기 이전의 모든 시대에는 읽고 쓰는 능력(文解·literacy)이 특권을 누리는 극히 일부 계층에 한정돼있었다.

읽고 쓰는 능력의 대중화는 곧 권력의 대중화가 됐다. 베네딕트 앤더슨이 지적한 바, 근대 국민국가의 성립에는 이른바 ‘출판 자본주의’의 발달과 읽고 쓰는 능력을 지닌 엘리트의 등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세기 이후 이 읽고 쓰는 능력의 대중화 현상은 ‘국민’을 형성하였고, 동시에 그것에 대항하는 ‘지적 대중’도 등장시켰다.

작금에 이르러 많은 대중에게서 이 읽고 쓰는 능력이 감퇴되고 있는 현상은 상당한 우려를 낳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대중은 역사상 가장 읽고 쓰는 능력이 출중한 세대다. 워낙 출중한 탓에 중요도가 높은 정보뿐만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정보들까지도 텍스트화해서 그것을 향유하고 있다.

우리학교 학생의 독서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그저 ‘시대적 흐름’ 따위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현실의 출판·기록문화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가와는 상관없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정보들은 거의 모두 문자 텍스트로 기록되어 있다. 이 정보들의 대한 이해가 지성에 다가가는 행위라면 학생들의 읽고 쓰는 능력을 계발하는 행위는 지성인을 육성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인문학 교육을 강화한다’는 교육철학을 앞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년 대비 거의 절반가량이나 떨어진 우리학교 학생의 독서량은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물론 ‘독서량’이 곧 ‘읽는 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지금의 학생들은 예전의 학생들에 비해 하루에 읽는 정보량의 총합은 월등히 높아졌을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어떤 정보’냐 하는 점이다. 개인 디바이스가 발달하면서 오늘날 술한 인류 고전의 요약본을 접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됐다. 그러나 검색이 사색을 보장해주지는 못하는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고전의 엠키스만을 추출하여 그것을 외우고 익히도록 하고 있는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현 교육 방식은 다시 한 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책을 읽고자 하는 자발적 마음을 함양하도록 인도하는 교육이다. 독서량이라는 그 수치에만 함몰되어 ‘독서’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려던 정경대학 ‘에피스테메’ 프로그램의 실패는 오늘날 학교가 학생들의 독서라는 문제에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간결한 SNS 문장과 간편한 스낵 컬처가 횡행하는 이 시대에 중요한 인류사적 정보를 담고 있는 장문 텍스트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와 가독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현대 고등교육이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이자, 이번 재학생 독서량 조사결과가 대학에 던지는 큰 당면과제일 것이다.

무슬림 유학생 중심으로  
청운관 할랄식품 큰 호응

미디어 여론동향 2016.05.23.~2016.06.03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서울캠) 생활협동조합(생협)은 이번 학기부터 청운관 지하 2층 학생식당에서 무슬림 학생을 위한 할랄식품을 판매하고 있다.(학생식당 무슬림 유학생을 위한 할랄식품 메뉴 신설/대학주보 온라인, 2016.5.25) 할랄식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식자재를 도살·처리·가공했음을 인증 받은 식품이다. 생협은 지난 2014년에도 할랄식품을 판매한 적 있지만 당시 미미한 반응에 중단됐다가 이후 글로벌센터의 요청에 따라 무슬림 유학생들과 협의를 통해 학생식당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 할랄식품을 생산, 판



이주의 주제 - SPACE21 중간점검

SPACE21 사업, 당당할 이유가 없다

김수진 <기자>  
sujin\_kim14@khu.ac.kr

대학은 2007년 처음 SPACE21 플랜을 처음 공개했을 때만 해도 작년인 2015년에 완공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인 공사는 완료시점이 한참 지난 지금 설계조차 완료되지 않은 건물도 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건물과 그 낡은 건물 속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에게 한 줄기 희망 같았던 SPACE 21 사업은 몇 년 동안 계속 지연되며 구성원들에게 ‘희망고문’ 만을 안겨주었고 이들에게 남은 것은 다가오는 졸업장 뿐이다. 정희민(지리학 2010) 군은 “내가 입학할 때 SPACE 21사업 완공 예정이 2015년 이었는데 완성은 커녕 먼저 졸업할 판”이라고 말했다. 곧 10년을 맞이하는 SPACE 21 사업은 구성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동시에 끝없는 논란을 일으키며 학교에 최대 이슈가 되었다.

사업의 첫 삽을 뜨는일부터 쉽지 않았다.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한편 학교가 원하는 신축 건물의 모델까지 담기 위해 기초 작업부터 많은 시간이 걸렸다. 끝이 없는 논의를 거쳐야 했고 이렇게 겨우 완성된 설계안이 착공을 코앞에 두고 없어지는 일도 있었다. 예산 마련에도 끝없는 잡음이 나왔다. 전체 사업 예산 중 절반에 달하는 500억 원을 기채로 마련한다는 말이 논란이 되기도 했고, 이를 상환할 계획 역시 학교 측이 명쾌하게 대답하지 못했다. 이런 일이 생길 때

마다 학교는 ‘소통 과정에서 구성원 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라며 사업 지연의 이유를 소통으로 돌렸다. 하지만 취재를 진행하며 건설사업단에 연락을 할 때마다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소통보다는 운영 방식 그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양 캠퍼스의 SPACE21 사업 예산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캠캠퍼스(국제캠)는 현재 종합체육관만 공사가 진행 중이다. 반면 서울캠퍼스는 간호대와 한의대 그리고 이과대학을 건축 중이다. 국제캠에서 ‘차별’ 논란이 불거지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다. 더욱이 국제캠 종합체육관의 경우 조속한 착공을 위해 체육대학이 자체적으로 발전기금을 모으는 등 자구책을 펼치기도 했다. 만약 체육대학의 이러한 노력이 없었더라면 국제캠엔 종합체육관마저 착공이 불투명하였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국제캠 학생 여론에 불을 지폈다. 국제캠 SPACE21 사업단 측은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다수의 국제캠 학생들의 의견은 이와는 다소 대조적이다. 몇 년 동안 논의를 했지만 현실은 당장 필요한 개·보수조차 언제 시행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이것이 어떻게 차별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만약 차별이 아니라고 한다면 학교 측은 학내 구성원의 의견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기자의 물음에 응답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진행상황과 정보공개 및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사업이 시작되고부터 9년이 지난 지금, 과연 학교는 구성원들과의 약속과 신뢰를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 물음을 던져봐야 한다.

어설픔게 수습하려 하지 말고  
투명성 높일 제도 마련해야

세시봉

김도엽 <편집장>



5월 30일 서울캠퍼스 각 대자보판에는 ‘역대 문과대학 학생회장의 지속적인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합니다’라는 대자보가 게시됐다. 대자보 속에서 지목된 역대 문과대학 학생회장들은 ‘그 역대 문과대학 학생회장들이 답합니다’라는 대자보를 통해 사실무근임을 발빠르게 응답했다. 구성원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자칫 학생회 전체의 신뢰가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구성원 사이에서 많은 의견들이 오갔지만 기자가 보기에 사건의 발단은 학생회비 사용이 단체명의가 아닌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데 있다.

총학생회는(총학)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자치회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해 제 3차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치회비 회계 감사의 단계적 확대를 결의한 바 있다. 48대 총학은 이를 인수인계 받아 자치회비 사용 내역의 작성방법, 보관방법 등을 정리한 ‘표준지침’을 세웠다. 정주희(사학 2012) 총학생회장은 “자치회비 공개의 투명성에 대한 여론이 높고 회계감사와 관련해서는 세칙을 넘어 회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회칙은 개정되지 않았다.

기자는 6월 2일, 대자보에 등장하는 문제의 버스업체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관계자는 현금 거래 시 부가세 부분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돼 거래기간이 짧아진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전임 문과대 학생회장들이 쓴 대자보에서도 밝혀져 있듯이 ‘도시락 업체’, ‘새터 업체’ 등의 업체에서도 은밀한 제한의 여지가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버스업체 관계자가 실제 역대 문과대 학생회장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경영대학 학생회는 스스로 ‘비영리 법인’화 할 예정이며, 방중 법민화 절차를 밟는다. 기존 개인계좌로 운영하던 학생회와 같이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가 아닌, ‘법인’과 ‘법인’의 거래로 바뀌어 운영 절차와 내용이 모두 투명해지는 효과를 가져와 이번과 같은 의혹 제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끔 한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서 제일 먼저 의심되는 것이 역대 학생회장들의 청렴성인 것은 아를 수 없지만, 한번 더 생각하면 경영대 학생회의 예처럼 애초에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부족했던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논란은 본질적으로 문과대 학생회가 집행하는 모든 비용을 투명하게 데이터화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다면 발생할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학교 학생회는 최근 지속적인 자치회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문과대뿐만 아니라 많은 단과대학들이 학생회 통장을 학생회장 혹은 학생회 부원의 개인계좌로 운영하는 관행이 바뀌지 않은 탓이다. 논란은 문과대 학생회에서 발생했지만 다른 단과대에서 또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없다. 이번 사건으로 총학이 제시한 ‘학우 참여형 회계감사 범위 확대’가 어떻게 결론 맺을지, 경영대 학생회와 같이 투명한 학생회비 집행의 제도를 만드는 단과대학이 이어 나올지 주목된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혜경 | 편집장 김도엽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33-4 | 주소정경 02-441-7317(미레1회)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33-5  
국제캠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천동)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 서울, 계획대로 … 국제, 체육관 제외하면 ‘계획설계’ 단계

## SPACE21 중간 점검

박기윤 기자 kyoon7230@khu.ac.kr  
김수진 기자 sujin\_kim14@khu.ac.kr

어느덧 신축건물이 눈에 띄게 높이 올라가고 있다. 건물이 점점 제 형상을 드러냄에 따라 구성원들의 공사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서울, 국제캠퍼스의 SPACE21 사업 전반을 살펴본다.

서울캠퍼스(서울캠)는 현재 행복기숙사와 간호대학관, 이과대학관, 한의대학관이 건설 중에 있다. 5월 말 현재 행복기숙사의 공정률은 35.8%, 전체 사업 공정률은 24.4%를 보이고 있다. 서울캠퍼스 SPACE21 건설사업단 장식원 팀장은 “행복기숙사는 내년 4월까지 공사를 마칠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1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학생들이 입사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포함한 완공일을 가능한 단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 외의 전체 공사도 내년 말까지 완공해 2017년 2학기부터 해당 단과대학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복기숙사가 완공되면 서울캠퍼스는 총 926명의 학생이 추가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서울캠 행복기숙사 내년 학기 입사 전체 공정률 24.4%

한편, 교시탑에서 노천극장을 잇는 동선이 기존 험퍽고개에서 숲길로 변경된 데 대해 장 팀장은 “처음에는 어색함을 느껴 구성원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불만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길이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안전성 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며, “앞으로의 공사도 초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구성원들이 미래를 위해 조금만 참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장 팀장은 서울캠 SPACE21 공사가 완료된 후 이전하게 되는 간호대, 이과대, 한의대의 기존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은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이야기했다.

국제캠퍼스(국제캠)의 경우 현재 신축 중인 종합체육관은 차질 없이 준공될 예정이지만, 기존에 계획됐던 신축 및 개·보수, 전면 리모델링 예정 건물의 경우에는 착공 시기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캠 SPACE21 건설사업단에 따르면 작년 1월에 착공한 종합체육관은 오는 2017년 1월 완공을 목표로 2016년 5월 중순 현재 기



국제캠퍼스 종합체육관이 건설중에 있다. 5월 기준 공정률은 61.7%이다

※SPACE21 건설사업단 홈페이지

준 약 61.7%의 공정률을 보이며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12월에 옥상 층 골조 공사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설계 변경 등의 문제로 착공이 미뤄진 신축 공과대학관, 외국어대학 교수연구동, 동서의학대학관 등의 건물들은 현재 ‘계획설계’ 단계까지만 진행돼 있는 상태다. 앞으로 중간설계, 실시설계 및 인허가 단계까지 거쳐야 하는데, 구성원 소통이나 다양한 대내외 변수 등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착공 시기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라는 것이 국제캠 SPACE21 건설사업단 측의 입장이다.

또한, 개·보수 및 전면 리모델링이 예정된 현 공과대학관, 외국어대학관, 생명과학대학관, 국제·경영대학관의 경우에도 종합체육관 완공 이후 착공될 계획이지만, 구성원간의 공간효율화 및 재배치 논의 과정을 마무리 짓지 못해 구체적인 공사 계획은 요원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제캠 SPACE21 건설사업단 측은 “필요한 공간, 디자인 등 구성원 소통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불필요한 공간 및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 다른 건설 계획도 늦어지게 된 것”이라

며 “종합체육관 완공 이후 R&D 단지 조성 등 캠퍼스 마스터플랜 차원의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곧 더욱 발전된 국제캠프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반면, 공대학관, 외대학관 등 ‘계획설계’ 단계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어지는 문제 해결에는 양 캠퍼스 모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사 중 소음문제에 대해 서울캠 SPACE21 건설사업단 측은 “(양 캠퍼스 모두)방음벽을 높이 설치하여 소음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특정 행사가 겹치는 시간대에는 공사를 잠시 중단한다”며 “학회, 학교 측과 소통하며 구성원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끔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 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에 물리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문제 역시 주기적으로 인원을 배치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분진 발생문제에 대해서는 살수차를 동원해 정기적으로 공사현장의 분진을 세척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야광등도 추가로 설치했다”고 말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양 캠퍼스 구성원은 공

사와 관련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서울캠에서는 공사가 끝난 후 밤에 크레인의 흔들림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는 구성원들이 공사가 끝나면 크레인을 고정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서울캠 SPACE21 건설사업단 측에서는 “크레인을 고정하게 되면 갑작스런 강풍에 크레인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염려가 있어 일부러 고정시키지 않았으며, 이를 고정시키는 것은 오히려 법률상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자연스럽게 흔들리다 보면 공사 현장범위를 넘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평소에는 야간에 이동할 범위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돌려놓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캠 내 일부 구성원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토한다. 우리신문의 기사에 달린 댓글에서 ‘차별’이란 낱어를 사용한 한 독자는 “서울캠은 원안대로 다 지으면서 국제캠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약속한 원안을 지키지 않고 재설계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8년 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으면서 진척된 것이 전혀 없으며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불만을 토 하고 있다. 또 외국어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A양은 “소문만 무성하고,

설계안까지 나왔으면서 왜 계속 사업이 지연되는지 모르겠다”며,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강의 수 부족과 같은 학내 다른 이슈들이나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국제캠 SPACE21 건설사업단 관계자는 “서울캠퍼스의 행복기숙사의 경우 사학진흥재단의 사학진흥기금 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SPACE21 사업과 동일하게 보기엔 한계가 있다”면서, “이를 제외한다면, 양 캠퍼스 모두 같은 규모의 건설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 국제캠퍼스 내에 예술디자인대학관 및 제2기숙사 등 서울캠퍼스 보다 더 많은 건설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 국제캠 공사 차질, 예산 확보 아닌 대내외적 소통문제

또한 총 사업비 중 국제캠퍼스에 배정된 약 916억 원의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학내구성원의 지적에 관해서는 “예산은 문제없이 집행되고 있으며 예산 확보 문제보다는 기타 대내외적 소통의 문제가 더 크다”고 말했다.

SPACE21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는 문제 중 하나는 예산 집행 및 기채상환 등의 문제다. 현재 건설 진행 중인 양 캠퍼스 SPACE21 사업의 총 (예정)건축비는 약 1,175.2억 원으로, 이 중 272.8억 원을 2015년 말까지 집행했다. 2016년 이후 집행이 예정된 건축비는 2016년 약 557.5억 원, 2017년 약 344.9억 원이다. 이 재원 마련에 대해 재정경영원 측은 “기채 360억 원을 포함해 현재 약 544.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재원은 편의시설 장기임대, 제1금융권 기채, 자산 유통화, 기부금 유치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채의 규모와 상환 계획에 대해서는 “제1금융권으로부터 예정돼있는 총 500억 원의 기채 중, 2016년 360억 원의 기채를 승인받아 집행했으며 남은 140억 원은 2017년에 추가로 빌려올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20년 간 상환 조건으로 KMC 사업 및 비하위과정 등 활성화를 통해 갚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상환 계획으로는 2016년에는 4억 원, 2017~2018년에 연간 14억 원, 2019~2036년까지 연간 30~40억 원을 상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어·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외국어강좌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 접수기간  
· 정규 외국어강좌(6주) : 2016. 07. 04.(월) ~ 2016. 08. 12(금)      · 접수기간 : 2016. 06. 01.(수) ~ 2016. 06. 29(수)

● Level Test  
· 영어회화 : 06. 28(화), 06. 29(수) 17:30      ·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회화 : 06. 28(화) 17:15

● 강의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07:45	영어/일본어/중국어	스페인어 초급2	Ted Talk	영어/일본어/중국어	스페인어 초급1	Ted Talk	영어/일본어/중국어	스페인어 초급2	Ted Talk	영어/일본어/중국어	스페인어 초급1	Ted Talk
08:45 09:00	중국어 초급1		중국어 초급1		必甄(必告) 중국어- 중국어 프리토킹		必甄(必告) 중국어- 중국어 프리토킹					
10:20 11:00 16:30 17:00	독일어초급1		독일어초급1		독일어초급1		독일어초급1					
18:00	Cantando		Video-debate		Cantando		Video-debate					
18:30	스페인어 초급2	베트남어 초급1	독일어 초급2	프랑스어 초급2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초급1	베트남어 초급1	독일어 초급2	프랑스어 초급1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초급2	베트남어 초급2
19:00												
19:20												
19:30												
19:50	스페인어 중급1		독일어 초급4			스페인어 중급2		독일어 초급2			스페인어 중급1	
20:00												
20:50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서울)  
Tel. 02) 961-0081~2    http://www.iie.ac.kr

2016학년도 2학기 국제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석·박사 과정)  
● 모집 분야 : 국제통상협력학과 / 국제개발협력학과 / 국제경영학과  
● 모집인원 : 석사과정 00명 / 박사과정 00명 (국제개발협력학과에 한함)  
● 지원자격  
석사과정 : 국내 · 외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박사과정 : 국내 · 외 대학교 석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 전형방법  
국내거주 지원자 : 서류(40%), 영어인터뷰(40%), 영어작문시험(20%)  
해외거주 지원자 : 서류(40%), 영어인터뷰(60%)  
※ 해외거주 지원자 인터뷰는 전화로 진행하며, 일자는 별도 통지  
● 전형일정  
서류접수 : 2016년 06월13일(월) ~ 06월 26일(일) 17:00 (우편 소인기준) 일요일은 방문접수 불가.  
국내 거주자 인터뷰 및 영어작문시험 : 2016년 07월 09일(토) 시간 홈페이지에 추후공지  
해외 거주자 전화인터뷰 : 2016년 07월 06일(수) ~ 07월 08일(금) 기간 중 개별안내 (예정)  
합격자발표 : 2016년 07월 18일 월요일(예정)  
※ 모든 서류전형이 접수된 지원자는 인터뷰 대상자입니다.(국내거주자의 경우 영어작문시험 포함)  
● 제출서류  
· 입학원서 (국제대학원 홈페이지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자기소개서 양식 포함)  
·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평균, 평점 및 백분율 성적 기재)  
· 추천서 2인 각 1부씩 (국문가능, 자유양식)  
· 졸업(예정)증명서 1부 (학위등록번호 기재)  
· 반경원판 사진 1매 (3cm\*4cm)  
· 전영료 : 70,000원 (E-mail 및 우편접수 시 온라인 입금)  
※입금계좌 : 하나은행 906-910002-76604  
※ 해당자에 한함  
· 공인영어성적 소지자 가산점 부여, 성적표 1부  
· 국문/영문 번역 공증서(졸업증명서, 전학년 성적증명서) \*영어권 이외의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  
· 영문 학업연구계획서(자유양식, 박사과정 지원자에 한함)  
· 영문 이력서 (자유양식, 박사과정 지원자에 한함)  
● 원서접수  
- E-mail 접수 : gsp@khu.ac.kr  
- 우편접수 : 17704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행정실 [봉투에 '입학원서 제출' 기재 후]  
- 행정실 근무시간 : 평일 09:00 ~ 17:30 / 토요일 09:00 ~ 16:00

(다양한 장학 혜택)  
· 입학 및 재학 시 성적에 따라 수업료 100~25% 면제  
· 학사조교 근무자 수업료 전액 면제 가능  
· 가계 곤란자 대상 수업료 지원  
· 기숙사 입사자 전월에게 기숙사비 50% 지원  
· 교내 연구프로젝트 참여 시 수당 지급

Graduate School of Pan-Pacific International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Tel : 031-201-2146~9, Fax: 031-204-8120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연재기획

데이터로 본 경희

#. 대학주보는 2016년 1학기, ‘데이터로 본 경희’ 연재를 진행중입니다. 데이터 저널리즘은 CAR(Computer Asisted Reporting: 컴퓨터 활용 취재보도)을 통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미디어계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대학주보는 이를 도입하여 교내·외의 데이터를 수집, 정리, 분석, 시각화해 깊이있는 기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연재의 다섯번째 주제는 재학생 독서량이 점점 줄어드는 현황에 관한 것입니다. 양 캠퍼스 독서량을 학술정보 통계시스템으로 조사 후 수치를 더해 우리학교 평균 독서량을 알아봤고 이를 타 학교 평균과 비교해 살펴봤습니다.

연재 순서

- 1. 양 캠퍼스 주변지역 치안범죄 현황
- 2. 강의갯수 변화 추이와 교원숫자로 살펴본 수강신청
- 3. 프라임 사업 학과별 정원 이동 및 신설학과 현황
- 4. 양 캠퍼스 대학생 주거문제 현황
- 5. 양 캠퍼스 도서관 관련 데이터 현황

우리학교 학생, 1달에 1권도 안 빌려본다

(월 0.94권)

재학생 독서 현황

김규래 기자 rlarbfo41@khu.ac.kr

학술정보 통계시스템 Rinfo를 통해 조사한 결과, 우리학교 재학생의 1인당 대출 권수가 연 평균 11.3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월 0.94권에 불과하다. 자료는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1년을 기준으로 집계했으며, 서울캠퍼스(서울캠)와 국제캠퍼스(국제캠)의 도서 대출 수치를 더한 값이다.

최근 6년간 우리학교 재학생의 1인당 연간 대출건수를 살펴보면, 매년 독서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에는 20.9권이었지만, 점점 하락세를 보이며 2015년에는 11.3권까지 독서량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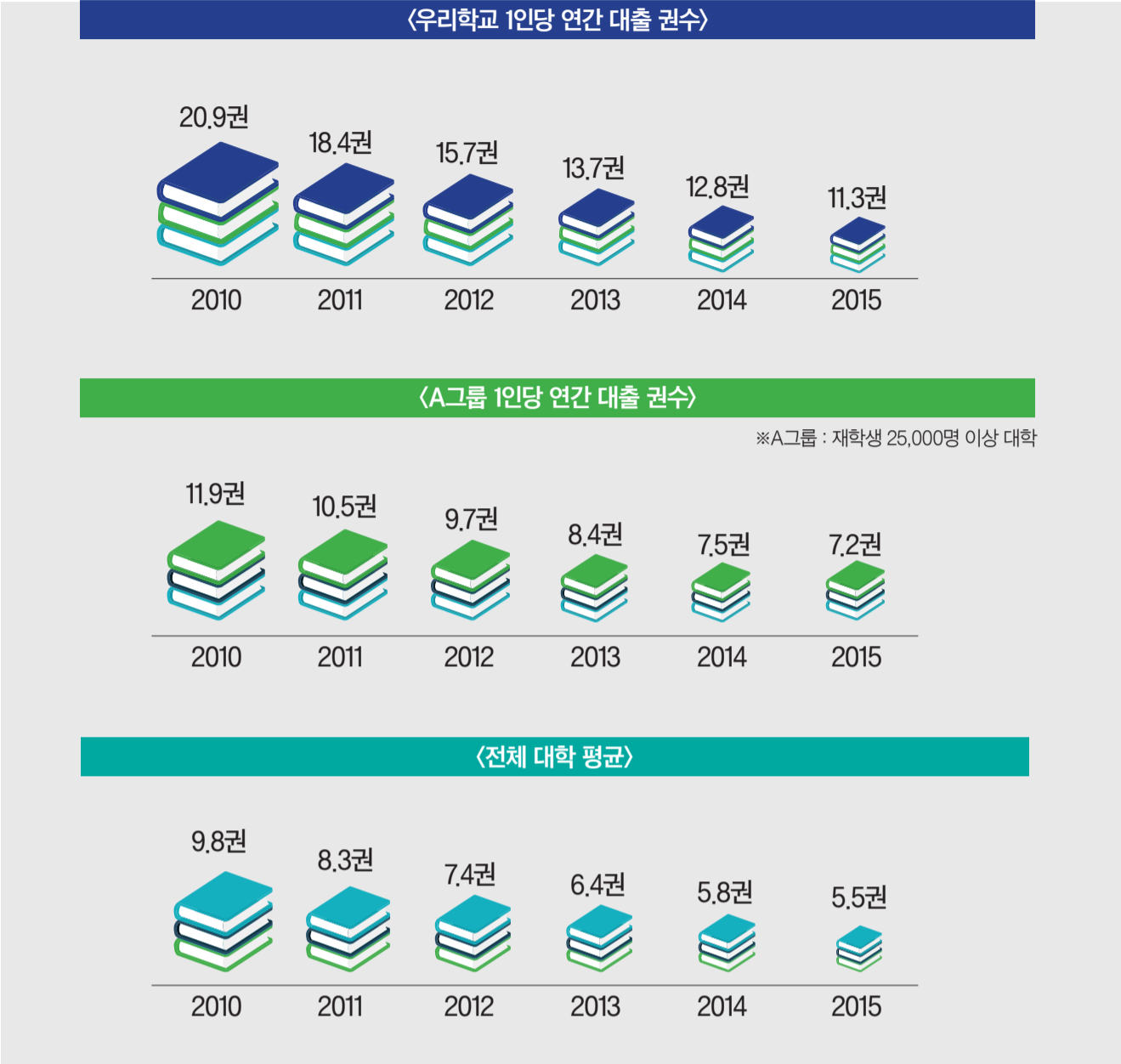
매년 계속되는 독서량 감소는 비단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학교와 규모가 비슷한 16개 대학의 재학생 1인당 대출 권수 또한 감소세다. 우리학교는 재학생 수 25,000명 이상인 A그룹으로 규모가 가장 큰 편에 속하는데, A그룹은 대체로 전체 대학 평균보다 독서량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A그룹의 1인당 연간 대출 권수는 2010년 연간 11.9권을 시작으로 10.5권, 9.7권, 8.4권, 7.5권, 7.2권까지 매년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대학 전체 1인당 연간 대출 권수도 9.8권, 8.3권, 7.4권, 6.4권, 5.8권, 5.5권 순으로 떨어졌다. 전체 대학의 독서량 또한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재학생 독서량 매년 감소

6년새 절반으로

한편, A그룹에서 가장 많은 1인당 대출 권수를 기록한 학교는 서울대학교로, 2015년 기준 15.1권이었다. 우리학교보다는 평균보다 4권 많았고, A그룹 평균에 비해서도 2배 이상이었다.

우리학교는 타 대학과 비교하면 수치상으로는 평균 이상이지만, 절대적인 독서량을 따져보면 여전히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1인당 대출 권수가 월 한권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독서량 감소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A그룹의 1인당 대출 건수와 비교하면 2010년에는 우리 학교 대출 건수가 평균보다 9권 많았지만 2015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단 4.1권만 차



이 날 뿐이다. 타 학교에 비해 독서량이 월등히 많았던 우리학교는 빠른 속도로 그 차이를 좁히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한 국민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독서량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일 또는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 비율이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책 읽기가 싫고 습관이 되지 않아서’라는 원인이 23.2%로 그 뒤를 이었다. 대학생들은 최근 얼어붙은 취업난 탓에 독서를 위한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스마트폰에 익숙한 요즘 사회현상에 미루어 봤을 때 모바일 문화에 적응된 세대가 종이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우리학교 도서관 측은 독서를 장

려하기 위해 서울캠은 학기당 한 번, 국제캠은 연간 한 번 다독상을 수여하고 있다. 다독상 기준은 대출 건수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지만, 연체이력, 도서 분실이나 훼손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독서량 감소원인

‘시간이 없어서’

재 대출을 제외한 대출 1건당 7점을 부여하고, 무인 자동 대출 반납기를 이용할 경우 1책 당 추가 점수를 부여한다. 연체 이력이나 책 훼손 시 감점을 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데, 가점과 감점을 종합해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 순서대로 선발한다. 2015년 1학기 기준 서울캠의 다독상 수상자 1위 학생은 4달 동안 무려 161권의 책을 대출했다. 2위와 3위는 각각 134권, 82권을 기록했다. 2학기 기준 1위 학생은 150권을 대출해 매우 활발한 독서 활동을 보였다. 국제캠은 2015년 기준 다독상 수상자 1위 학생이 무려 371권의 책을 이용하는 기염을 토했다. 2위를 차지한 학생 또한 362권을 이용했다.

중앙도서관 열람과 측은 “학기 중에는 그나마 대출이 활발하지만, 방학이 되면 도서 대출이용은 현저하게 떨어진다”며 “방학 중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 방학 약 두 달 동안 이용 가능한 장기대출을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6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 안내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1. 계절학기 주요 일정

구분	일시	비고
개설과목 확인	2016.05.04(수)	본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게시판에 '2016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시간표' 공지 참조
학점교류생	추천기한: 2016.05.30(월) 17:00 까지 학번부야: 2016.06.07(화)	학번부야 SMS 안내 문자 발송
수강신청기간	2016.06.14(화) 10:30 ~ 06.15(수) 17:00	본교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계절학기 시간표 및 수강신청 링크' 클릭
폐강공고	2016.06.15(수) 12:00 (8차) 2016.06.21(화) 09:00 (2차)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등록금 납부기간	2016.06.16(목) ~ 06.20(월) 16:00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수강행정기간 (폐강과목 수강생)	2016.06.2(화) 09:00 ~ 17:00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방문 (폐강과목 수강자에 한함)
수업기간	2016.06.22(수) ~ 07.13(수)	
성적열람(장정일)	2016.07.15(금) ~ 07.18(월)	

2. 수업안내

가. 수업시간

구분	학점	교시	시간대	구분	학점	교시	시간대
서울 캠퍼스	1학점(실기)	1교시	10:00~11:50	국제 캠퍼스	1학점 / 3학점	온라인강좌	온라인강좌
		2교시	13:00~14:50				
	2학점	1교시	10:00~11:50			1교시	09:00~11:45
		2교시	13:00~14:50				
	3학점	1교시	09:00~11:45		3학점	2교시	13:00~15:45
		2교시	13:00~15:45				

나. 시간표 및 강의계획서 확인: 2016.05.04(수) 본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게시판 참조

3. 수강신청

가. 수강가능 학점: 최대 6학점

1) 수강가능: 국제교류처 어학연수, 단과대학 현장연수활동, Global Collaborative 프로그램과 동시 수강 가능  
2) 단, 수강가능 학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수업시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강좌 수강 불가

나. 수강신청 방법

1) 정규학과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학점교류생 동일)  
2)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계절학기 수강신청 링크 클릭→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교과목 선택

4. 수강등록

가. 등록금액: 1학점당 89,000원

나. 등록방법: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장학→ 등록매뉴 중 [계절학기 등록금 안내] 참조  
1) 입학사정: (학년) 2016학년도, 학기) 여름학기, 학번) 경희대학교에서 부여된 본인의 학번을 입력 후 조회  
2) 확인사항: 신청과목과 납부금액, 본인에게 부여된 하나은행 계좌번호 확인

다. 납부방법: 생성된 계좌번호로 등록금 납부

1) 등록금 납부 전 본인이 신청한 과목의 폐강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2) 등록금 납부일 이후 수급이 불가하오니 등록기간 내에 완납하기 바랍니다.

5. 등록 후 수강취소 및 환불

환불기준	기간	환불금액	수강취소방법
수업개시일 전까지	등록일 ~ 2016.06.21(화) 17:00	전액 환불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방문
수업개시일일부터 1/3 경과 전	2016.06.22(수) ~ 06.28(화) 17:00	수강료의 2/3환불	→ 계절학기 등록금 환불신청서 작성
수업개시일 1/3경과한 날부터 1/2 경과 전	2016.06.29(수) ~ 2016.07.01(금) 17:00	수강료 1/2환불	(본인명의 통장 사본 등용)
수업개시일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수강 취소 불가함)		※ 폐강과목수강자 포함

\*환불금액 지급예정일: 수업개시일 1/2 경과 후부터 환불신청자에게 일괄 지급함. (바로 환불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가. 개설기준: 전공 10명 이상, 교양(기초/배분/자유수) 20명 이상  
나. 전공강좌 개설여부 및 전공수업에 관한 사항은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  
다. 2016학년도 1학기 현재 수강 중인 강좌는 계절학기 수강신청 불가  
라. BO 이상의 성적을 받은 경우 계절학기 재수강신청 불가함(2014학년도 1학기 성적부트 해당됨)  
마. 수강 신청기간 이후 수강강좌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수강취소만 가능)  
바. 폐강과목 수강자는 환불/수강정정 여부를 결정하여 반드시 해당 기간 내 후마니타스칼리지행정실 방문  
사. 계절학기 수업시간의 2/3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학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아. 계절학기 수강은 졸업 전 통산 8회, 5년제는 통산 10회, 6년제는 통산 12회로 하며, 편입생은 그 절반으로 함  
자. 휴학생 계절학기 수강 시 유의사항  
1) 휴학 중 2회에 한하여 계절학기 수강 가능 (편입생은 휴학 중 1회)  
2) 졸업유예자는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을 불허함

7. 문의처

가. 서울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02)961-9311, 9339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청운관 2층  
나. 국제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031)201-3401~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멀티미디어교육관 5층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서울캠퍼스 2016학년도 1학기 모자이크장학 신청 안내

학생 맞춤형 장학제도 "어학성적 · 자격증 취득, 수상, 봉사한 학생을 장학금 놓치지 마세요!"			
<b>● 신청기간 및 대상</b> - 신청기간 : 2016. 5. 30(월) ~ 6. 17(금) [3주간] - 신청대상 :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중, 모자이크인형현황표의 포인트 200,000점 이상자 (타장학수혜자에게도 장학 지급이 가능하며, 등록금 초과 장학지급 가능) - 장학금 : 20만원~100만원			
<b>● 모자이크 장학이란?</b> - "학생의 역량강화나 사회공헌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학생 맞춤형 장학제도"			
분야	등급별 분류기준	포인트	비고
학업역량	국제대회 3위 이상 이상	500,000	* 포인트 인정 대상기간: 2015.12.1. ~ 2016.5.31 * 상기 기간 중 취득한 증명서 및 활동내역서 인정
	전국대회 3위 이상 이상	300,000	
	시도단위 3위 이상 이상	150,000	
	교내 경대대회 최우수상	100,000	
	SO, SS인원 학생자	500,000	
	SCIE급 학술지	400,000	
사회봉사 역량	국내 우수 학술지	150,000	* 외국어/한자 성적증명서 인정 기준 : 포인트 인정 대상기간 내에 응시 및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해외자원봉사	50,000	
	교내외 자원봉사 10시간	10,000	
	한림사(2명)	10,000	
	토익 900점(이상) / 토솔(TT) 110점(이상)	200,000	
	토익 800점(이상) / 토솔(TT) 100점(이상)	100,000	
국제화 역량	JLPT N1급 / JPT 715 이상	200,000	* 외국어/한자 성적증명서 인정 기준 : 포인트 인정 대상기간 내에 응시 및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JLPT N2급 / JPT 540 이상	100,000	
	HSK 6급 이상 / 신 HSK 5급 이상	200,000	
	HSK 5급 / 신 HSK 4급 210 이상	100,000	
	DEL F C1 ~ C2	200,000	
	DEL F B2	100,000	
	TORFL~2	200,000	
	TORFL~1	100,000	
	ZD befriedigend 이상	200,000	
	ZD ausreichend 이상	100,000	
	DEL E Diploma Superior(고급)/ FLEX 토픽/읽기 901 이상 및 쓰기/말하기 227 이상	200,000	
	DEL E Diploma Intermedi(중급)/ FLEX 토픽/읽기 776 이상 및 쓰기/말하기 200 이상	100,000	
	한국어문화 1급	200,000	
	한국어문화 2급	100,000	

※ 기타 지원자격 및 유의사항은 홈페이지(단대, 장학팀) 및 단과대학 게시판, 개인 이메일 참조  
**●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 → 『2016-1학기 모자이크장학』 신청하기 → 개인역량 조회 → 신청 버튼 클릭, 완료(학생 제출서류 없음, 온라인으로 대체)  
(\*학생들은 필수에 종합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개인역량관리 → 개인역량입력(및 증명서류 단과대학 제출)을 하며, 단과대학의 승인 처리를 받아 놓아야 함)  
**● 관련문의**: janghak@khu.ac.kr/ http://janghak.khu.ac.kr, 961-0045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

# 우리의 ‘아름다움’ 발견하고 인정해야

전문가칼럼 - 아방가르드 음악

박준영  
작곡과  
교수



인류문명의 역사가 이어져온 이래로 문화는 인류의 일기장かと도 같이 당시의 사회를 그때그때 반영해왔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고안된 해결책이 다시금 새로운 문제를 낳는 것은 인류사 전반에 걸쳐 드러나는 보편적 현상이다. 음악사도 마찬가지였다. 후기 낭만주의를 극복하고자 했던 쇤베르크는, 이후 철저한 비 대중적 예술어법에 빠져들게 되며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쇤베르크의 시대는 레코드의 발명으로 음악이 문화 산업화되던 시기였다. 문화 산업주의자들은 당연히 잘 팔리는 음악을 만들기를 원했고 이를 작곡가들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쇤베르크는 단지 예술을 하겠다는 일념 아래 아무도 사고 싶어 하지 않을 12음 음열 음악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문화산업주의 혹은 문화상업주의에 저항했다.

## 순수한 아름다움 쇤베르크의 ‘아방가르드’

이에 대한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치하의 독일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태도로 음악활동을 해왔다는 것만으로도 그와 비엔나 악파를 당대 ‘아방가르드음악가’라 칭하지 않을 수 없겠다. 쇤베르크와 비엔나 악파의 음악이 사회적으로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사회주의권에서는 이들의 음악이 인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비 대중적 음악이라는 이유로 비토되었고, 자본주의권에서는 비 상업적 음악이라는 이유로 비토되었다. 하지만 예술음악이 또는 예술이 사회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당시 사회에서의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반영이고 주장이며 시대정신이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때론 엄혹한 사회 속에 살고 있어도 양지에서 고풍아세하는 예술은 영속성이



없다. 예술에서 아름다움의 의도와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그 어떤 미학도 궁극적으로 느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쇤베르크와 비엔나 악파의 음악적 ‘태도’는 오늘날 비 대중적, 비 상업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예술음악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아방가르드 음악예술이 자생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 필자는 대단히 비판적이다. 한국은 분단된 작은 나라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면에서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다. 특히 문화는 다른 분야보다 더 외세의 의존적이고, 사대적이기까지 하다. 선진국에서 인정받아야 우리나라에서 인정받는 풍토를 생각해보자. 우리 음악인이라고 인정받는 정명훈, 정경화, 장영주, 조수미, 윤이상, 진은숙 등 수 많은 유명 클래식 음악가들은, 사실 혈통만 한국 사람일 뿐 외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에 진배없다. 다만 외국에서 인정받았으니 우리도 비평 없이 인정하는 구조일 뿐이다. 이것이 문화적 식민주조가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풍토, 그리고 문화예술을 모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풍토,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나라 예술은 한국 국민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움을 선사할 수 없고 다만 선진국의 미학만 전달하는 꼭두각시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토대도 없는 마당에 아방가르드 음악예술을 논한다는 것은 난센스일 수밖에 없다.

## 사회모순 질타하고 새 미래 논해야 건강한 예술

요사이 언론으로부터 언급되고 있는 소위 ‘조영남 사태’를 보면, 그가 했다는 예술은 사실 우리 사회의 문화적 자화상이고 수준이며 우리 사회의 리얼리티를 대변한다 하겠다.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 머리 좀 있고 재능 좀 있다는 그가 해외로부터 온 컨셉 예술에 국내의 극심한 상업주의를 더해 힘없는 사람을 등치고 예술을 빙자한 장사를 해먹었고, 그 와중에 ‘재수 없이’ 걸려서 운 없는 그를 대중들이 군중심리로 매도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사실 여기에서 자유로운 국내 예술가가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대체로 이러한 일은 범조계든 의학계든 정치권이든 어느 분야나 비일비재하며, 계속 반복 진행되어 왔고, 재수 없는 사람들이 군중으로부터 몰

매 한번 맞고 또 잊어버리는, 이런 악순환 구조에서 우리는 살아 왔다. 100년 전 유럽의 아방가르드 예술 예술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술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 사회의 모순을 질타하며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 할 때 건강한 사회적 기능을 하게 됨을 보았다. 물론 지금의 한국은 그때의 유럽과 많이 다르다. 시대도 점점 가속도가 붙듯 빠르게 변하고 있고, ‘알파고 시대’를 맞아 예술에 대한 근원적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다. 하지만 인류가 생존하고 있는 한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을 인간은 버릴 리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와 사회에서 건강한 예술가들이 아름다움을 찾아내야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예술적 도덕적 의무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렇게 치열한 작업을 하는 많은 아방가르드 예술가를 갖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정화되었다는 척도로 기능한다 하겠다. 어찌면 현대사회는 예술가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많은 이름 없는 예술가들이 순수라는 이데올로기에 잘못 걸려 굶어 죽을 듯 우리 사회를 그려 가고 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래의 그들에게 우리 사회가 많은 성원을 보내주길 바랄 뿐이다.

## 참여마당

김동선  
(평화의전당 부관장)



## 멋진 대학 만들기

5월은 아름다운 계절, 가정의 달이다. 5월의 중간, 감사와 존경의 ‘스승의 날’이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축제, 대동제가 이어진다. 그러나 대학의 5월은 부끄러운 달이다. 그동안 우리대학의 외형적인 힘의 팽창은 여기에 상응할 만한 정신력의 성장이 따르지 못했다. 겉치레와 출세지향적인 가치, 교수와 직원의 수직적인 동면형 행정, 먹고 마시는 놀이 문화축제에서는 다양성과 역동성, 그리고 창의성이 있는 답을 찾기 어려워 졌다. 혼동하기 쉬운 명예심과 허영심, 가치의 부재, 자기 상실의 시대. 요즘 우리 대학들의 현실이다. 존경과 감동은 시대를 넘어 흔들리지 않는다. 울림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바뀌어야 한다. 형평이란 무엇인가. 한 사회가 그 성원에게 혜택과 부담을 고루 나누고 있는가. 사람들끼리 서로 정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 중심에 대학과 교수가 있다.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대학이 변하고 이 사회가 건강해진다.

## 아직도 대학의 칸막이·층계문화 만연

## 결국 우리 사회의 역기능 유발하는 원인이 돼

## 이제는 질서와 본분 지키는 멋진 대학 될 때

스승의 날, 학생의 존재로 충분하다. 대학에 생산성을 주는 것은 학생이다. 교권은 가장 큰 선물이다. 대학의 품위와 탁월함을 고취하는 단초도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입학이후 졸업까지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그들은 졸업 후에도 동문으로서 모교에 변함없는 애정을 전한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고뇌하는 그들에게 고마움과 꿈과 희망을 전해야 한다. 카네이션과 선물을 받는 대신 제자들을 위해 학생식당으로 스승들이 마음으로 초대하는 아름다운 대학문화는 요원한가.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낮은 곳에서만 볼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칸막이와 층계문화로 점철되어 온 대학의 생산성은 사회로 역류된다. 학생들은 배운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답습한다.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유발한다. 부끄러운 대학의 자화상. 우리사회의 도덕적 잠재력의 한계와 윤리를 다시 묻게 된다. 이 또한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다. 모두의 질서, 기본과 본분을 지키는 대학 사회, 마음가짐과 정신적 성숙이 필요하다. 잘 나가는 대학보다는 멋진 대학 만들기가 우선이다. 개인이나 사회나 자신의 모순과 부끄러움을 고쳐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철저한 자기성찰, 자기개혁의 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 대학 주변의 비합리성과 부끄러움을 씻어 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우리가 꾸미고 있는 역사에 대한 책임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개개인에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 보아야 할 5월이다.

## ▶1면에서 이어짐

인간이 지닌 탁월성의 실현은 그 자체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그 자체로 좋은 것이다. 이것이 인간다운 인간이 추구하는 ‘좋은 삶’이다. 인간다운 인간이 ‘좋은 삶’을 살고 난 후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가장 좋은 것로서의 행복,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다. 그러니까 행복이란 ‘좋은 삶’은 살지 않은 사람들은 바랄 수조차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삶’을 살아 온 사람만이 바랄 수 있는 삶의 목적이 행복인 셈이다. 이 문장에서 발견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윤리적 질문이다. 이 윤리적 질문 때문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론의 핵심이 등장하게 된다. 이 책은 아버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들 니코마코스에게 들려주는 ‘좋은 삶’에 대한 이야기이다. 윤리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



## 행복이란 ‘좋은 삶’은 살지 않은 사람들은 바랄 수조차 없는 것이다.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은 이번 순서를 마지막으로 연재를 마감합니다.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는 ‘좋은 삶’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책에서 아버지는 단지 개인적인 ‘좋은 삶’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는다.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선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홀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을 둘러싼 공동체가 ‘좋은 삶’을 살아갈 조건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공동의 선을 구현하는 일에 무심하다면, 다시 말해 정의롭지 않다면, 개인은 결코

홀로 행복을 바랄 수 없다.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정의는 이렇게 연결된다. 이 사회의 정의는 나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서 개인은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솔론(Solon)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좋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개원10주년 기념

## 희망나눔 열린음악회

2016년 6월 10일(금) 오후 7시 /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

문화기증과 함께하는  
“희망나눔 열린음악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Happy, Love, Fun, Together in  
생명을 향한 사랑과 나눔의 실천, 불우이웃 및 난치병 치료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후원 참여 및 문의 전화 102-440-7772,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출연진

소프라노

공진배스텐드

산조팀

달리(ALI)

목자영

한가영

최정진교 무소

가제: 송연진 -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학과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협정 및 무용, 신드러도 외  
주최: 송연진은 성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화

## 스테이크와 함께 익어 가는 ‘성공’의 꿈

## ‘스테이크아웃’ 성공 비결

기호웅 기자 kihodori2@khu.ac.kr  
김은수 기자 eunsu1031@khu.ac.kr

#, 대중제를 맞은 국제캠퍼스(국제캠) 멀티미디어관 앞, 파란 천막 아래 동아리 부스들 사이 아담한 검정 트럭이 향긋한 고기 냄새를 풍기며 학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사람들은 스테이크의 맛과 향기 뿐 아니라 착한 가격에 더 놀라는 모습이다. ‘스테이크아웃’은 특별한 날에만 먹는 고급 음식이라 여겨지던 스테이크를 9,9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팔면서 여러 차례 방송을 탔다. 축제 중 유독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던 이 푸드트럭의 주인은 바로 ‘스테이크아웃’의 이동익(스포츠의학 2011) 대표이다.

‘스테이크아웃’은 “Real steak for everyone!”을 모토로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스테이크의 대중화를 꿈꾸며 우리 학교 학생들이 모여 창업한 푸드트럭 기업이다. 시작은 미미했다. 지난해 9월 이 대표는 한 대의 작은 트럭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커져가는 사업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웠고, 이에 이 대표는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영입해 사업 규모를 확장했다. 현재 ‘스테이크아웃’은 5대의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초 학업과 창업을 병행하는 데 학생의 신분으로는 한계를 느낀 이들은 다 함께 휴학하고 본격적으로 요식업 세계에 뛰어들었다. 지난 2월에는 공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상암동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지금은 다 함께 숙소에 살면서 출·퇴근하고 있다.

‘스테이크아웃’의 인지도가 높아지게 된 계기는 지난 3월 서울시 ‘밤도깨비 야시장’에 진출하면서부터다. ‘밤도깨비 야시장’은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이들에겐 가장 큰 행사로, 올해에는 500개의 지원업체 가운데 30개의 업체만 선발됐다. 이 대표는 “‘밤도깨비 야시장’에서 예상 밖의 인기를 끌면서 스테이크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대학 축제와 학원가 등을 거점으로 스테이크를 판매하다가 요즘은 출장 연회서비스인 케이터링 서비스(Catering Service)를 통해 큰 행사와 지역축제 등에서 섭외를 받는 인기 업체가 됐다. 창업 후 언제 가장 뿌듯했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지나가다가 우리 트럭을 알아보고 멈춰서서 스테이크가 정말 맛있다고 칭찬해주는 때 뿌듯하다”라며 ‘스테이크아웃’의 높



‘스테이크아웃’의 이동익(왼쪽) 대표가 푸드트럭 앞에서 미소 짓고 있다(사진 우)

“스테이크 아웃은 사업 초기 불안정한 환경과 부진한 판매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높은 접근성과 저렴한 가격으로 각종 지역축제와 대규모 행사에 섭외받는 인기업체로 거듭나고 있다

아진 인기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중성을 뿌듯한 마음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스테이크아웃’의 사업이 항상 잘됐던 것은 아니다. 사업 초기 주변 상권의 향의로 쫓겨 다니기도 했고 추운 겨울 날씨 때문에 고생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점포가 아닌 푸드트럭을 운영하면서 분명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며 “영업에 위한 환경이 불안정하고 외부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참여했던 큰 행사에서 생각보다 부진한 판매로 물량이 많이 남아 처리하기 어려웠던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스테이크아웃’이 주목받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과 쉽게 접할 수 있는 접근성에 있다. 가격은 9,900원으로 외부 식당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하다. 이 대표는 “일반 레스토랑에서는 원재료 비용이 40%, 마진이 6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는 비싼 임대료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비용 때문이다”라

며 “우리는 점포형식이 아닌 테이크아웃 형식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비싼 고가를 저렴하게 팔아 40%의 마진으로도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혹시 가격 대비 질이 좋지 않은 고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우리는 상위 2~12%의 최상위 프라임·조이스 등급의 미국산 소고기만을 사용한다”며 고급호텔에서 사용하는 고기에 뒤지지 않는 품질임을 자신 있게 말했다.

‘스테이크아웃’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10,000원’이라는 과격적인 시급을 제공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서울·경기 지역에 40여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카카오톡을 통해 장소와 날짜를 공지하면 여건이 맞는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급이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높고 대우가 좋아 한 번 아르바이트 공지를 올리면 지원자가 많다. 현재 ‘스테이크아웃’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노종현 군은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시급이 높고 업무 환경이 좋아 만족스럽다”며 “앞으로 이 대표와 같은 요식업 부문에서의 창업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높은 시급에 대해 이 대표는 “우리들도 같은 처지의 대학생으로 일하기 때문에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의 인연이 학교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남다른 소속감도 보였다. 이 대표는 “우리학교 학생들이 모여 시작한 사업이고,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가 우리 사업의 구심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테이크아웃’을 방문하는 학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대중제 기간 동안 스테이크를 구입해 맛본 박동원(유전공학 2016) 군은 스테이크 시식 후 “우리학교 선배가 창업한 회사인지 처음 알았다”며 “맛과 가격 모두에서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스테이크 판매뿐 아니라 더 질 좋고 맛있는 스테이크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TV에 나오는 셰프들의 레스토랑에 직접 찾아가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스테이크 전문가들을 사무실로 초청하기도 한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공부를 하면서 각종 재료부터 요리법까지 스테이크 분야에서는 모르는 게 없을 정도”라며 “스테이크 분야에 있어선 그 어떤 양식조리사보다도 많이 안다고 자부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창업을 꿈꾸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창업을 적극 장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창업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남기는 말로 이 대표는 “언제나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인 것 같다”며 “하루 벌이에 일회일비하지 않고 아이템에 대해 확신을 갖고 철저히 준비해 도전하는 것이 모든 창업의 출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 대표는 “푸드트럭을 통해 빠른 회전율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스테이크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푸드트럭 업계에선 이미 꽤나 유명한 ‘스테이크아웃’은 이제 매장 오픈을 꿈꾸고 있다. 이 대표는 “‘스테이크아웃’을 미국의 유명 체인점인 ‘쉐이크버거(Shake Shack Burger)’같은 프랜차이즈로 성장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이 대표는 다시 트럭으로 돌아가 환한 얼굴로 손님을 맞이했다. 불판 앞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고기를 굽는 ‘스테이크아웃’의 열정은 더운 날씨보다도 뜨거웠고, 이들의 미래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세계 초일류 융복합 대학 admission.dgist.ac.kr

# DGVIST

## 2017학년도 봄학기 대학원 학생모집

21C 세계 융복합 과학기술의 중심, DGIST에서  
자식창조형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로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 봄학기 전형 원서접수

6.30<sup>Thu</sup> ~ 7.14<sup>Thu</sup>

## 전공 오픈랩

일시	장소
6.25(토) 12:00~17:00	DGIST 컨실리언스 L29 및 각 전공별 장소

- DGIST 무료셔틀버스 운행
- 기관 및 입학전형 소개, 전공 소개, Lab Tour 등
- 시외 교통비 지급 및 간단한 중식, 기념품 제공
- ※ 위 오픈랩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입학홈페이지 참조)

## 수도권 면담형 설명회

- 개최일자 : 매월 둘째주 금요일
- ※ 전공별 개최일시 등 세부일정은 입학홈페이지 참조
- 장소 : DGIST 서울홍보센터
- 전공별 교수와의 면담 운영(약 1시간 50분 진행)
- 사전신청 필수(신청자가 없는 전공은 설명회 미실시)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DGIST 입학홈페이지 참조

온라인 양식 제출  
- admission@dgist.ac.kr으로 송부

## 전공별 모집과정

전공	과정
신물질과학전공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정보통신융합공학전공	※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전공의 평가결과에 따라 통합과정이 아닌 석사과정으로 입학가능
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로봇공학전공	석사과정, 박사과정
뇌·인지과학전공	※ 석사과정 학생은 1학기의 수학과정을 마친 후 소정의 절차를 통해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 가능
뉴바이올로지전공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 장학혜택 및 특전

※ 전공별 특성화된 장학혜택은 각 전공 홈페이지 참조

분류	내용
납입금 면제	전원 국비장학생 선발
교육 및 연구장려금 지원	■ 박사과정 : 13,680,000원 + @/년 ■ 석사과정 : 7,440,000원 + @/년
기숙사 입주	전원 입주 가능
해외연수 실시	전공별 해외 유수대학연수 지원(존스홉킨스 의과대학, ETH Zürich, UC Berkeley), 국제 심포지엄 참가 지원 등
전문연구요원 편입	박사과정 대상 100% 편입 가능
국가 거대연구과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GIST 융합연구원 및 소속 9개 센터 (DGIST-LBNL 신물질연구센터, 마이크로레이저융합 연구센터, DGIST-ETH 마이크로로봇연구센터, 고신뢰CPS연구센터, 미래자동차융합연구센터, 태양에너지융합연구센터, 헬스케어융합연구센터, 핵심단백질연구센터, 웨어러블연구센터)</li> <li>■ 한국뇌연구원</li> <li>■ 기초과학연구원(IBS) 식물노화수명연구단</li> </ul>